**<9월 16일 – 여섯번째 수업>**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아무리 세상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과 즐거움은 결국에는 헛된 것이다.” 진리를 알아야한다. 본질과 현상. 어떤 현상이든 본질이 그 위다. 만유인력의 법칙과 비슷하다. 바람이 불어서 사과가 떨어지든 태풍이 불어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현상이지만 본질 즉 눈이 보이지 않는 만유인력이 있기에 사과가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내눈으로 보는 현상들이 있지만 보이는 것 위에 본질이 있다.

문화의 차이도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 가서 한국의 인사 방식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인사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다. 그런 것처럼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면서 나의 문화도 상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볼 수 있는 것이 집단의 영향과 무서움이다. 집단 전체가 틀린 말을 하면 옳은 소리를 하는 내가 이상한 것 같다는 기분이 들 때도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집단의 영향력이고 무서움이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노력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한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다. 불교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아니다. 아무리 깊이 파서 금과 은을 찾을 수 있지 않고, 금과 은을 눈 앞에서 준다했는데 안받으면 그만이다. 이게 바로 진리의 가격이다. 진리의 가치를 아는 것이 바로 진리의 가격이다. 내가 진리의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께 구해라.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치를 알기를 원한다고 구해야한다.

정체성은 정당성을 포함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바뀔 것은 바뀌어야 하지만 바뀌면 안되는 것이 바로 진리이다. 왜 알아야하는가? 인간은 자신의 가는 길이나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하는가 하는 본능이 있다. 이러한 인가의 본능은 없어지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을 다 없애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인간의 욕망을 없애려는 욕망은 어떻게 없앨 것인가?

욕심과 욕망의 차이는 무엇일까?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욕망이 없으면 사람은 의욕 없이 사는 것이다. 욕심은 욕망의 부정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지만 그것이 과하게 되어 부정적으로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것이다. 그 양다리가 욕심인 것이다.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욕망에 대한 질문의 종류는 이러하다. 사탄의 질문, 인간의 질문, 하나님의 질문, 예수님의 질문 실존적 질문.

사탄의 질문은 뱀(마귀)이 이브에게 한 최초의 질문과 같다. “하나님 같이 되리라” 라는 정체성의 도전을 하는 질문이다. 사탄의 질문은 지금도 계속된다. 종교를 통해 뉴 에이지, 학문을 통해 무신론적 진화론, 철학을 통해 무신론적 실존철학, 자아를 통해 자아중심적 삶. 자유는 자연의 섭리(규칙)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규율 안에서 사는 자유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 뿐이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다.

두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으로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종교적 본능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한다. 신은 누구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내세는 존재하는가?

세번째는 인간의 질문이 있다. 인간이 인간을 향한 질문(인간의 정체성), 인간이 인생을 향한 질문(의미와 목적), 인간이 자신을 향한 질문(자아의 정체성)이 있다.

네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질문이 있다. 최초의 질문인 “네가 어디있느냐?” 너의 정체가 무엇인가? 너의 정체성이 어디있느냐? 왜 잃어버렸는가? 그런 정체성의 질문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체성을 질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아시고 물어보시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죄의 속성은 숨긴다.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고 자신을 나무 뒤에 숨는 아담. 늘 숨게 된다.